



# 거룩한 사랑

알리는 뉴스레터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공식 간행물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성상(聖像) -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 에큐메니컬(Ecumenical) 선교회와 성지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Ecumenical) 선교회와 성지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사업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천국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을 통해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 복음 메시지의 실현, 그리고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모린 스위니-카일(Maureen Sweeney-Kyle), 목격증인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선정지명(visions), 발현, 메시지들은 1985년에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거의 매일 모린(Maureen)에게 발현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공동 기도) 노력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들에서 인용된 다음 인용문들은 선교사업의 목적과 초점에 대한 명확성을 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와서 은총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선교사업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즉,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고, 수많은 초자연적 은총이 충만하게 이곳에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의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나라와 이데올로기(ideologies 이념, 관념)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2011년 9월 15일 - 자정 기도모임)

“이 선교회의 (기도의) 성지와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감과 은총,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초대에 따르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 2012년 1월 20일)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동기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양성에 빠진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 온갖 종류의 관심사를 거룩한 사랑에 우선하여 두는 마음은 진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예수님 - 2012년 1월 17일)

“나는 각 영혼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정도에 따라 심판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왔다. 이것이 이 선교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즉, 미래를 예측하는 한 선교사업보다 더 중요한 이유다. 미래를 단정하는 것은 마음이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른다. 만약 마음이 거룩한 사랑을 통해 회개한다면 너희는 하느님의 정의나 미래의 일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10월 19일)

“오늘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이곳 발현 성지에서 나를 만나기를 요청한다. 나는 소심하여 적극성이 없는 사람과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 오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가장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과 개인의 성화에 가까워진 사람 들 모두를 초대한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나는 오는 이들 모두에게 양심 조명의 은총과 회개의 은총을 준다. 내가 주는 것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절할지는 여기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마음의 선택이다. 모든 이가 이곳으로 부름을 받는다. 나는 내가 제공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사람들 모두를 환영한다. 이 초대는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도전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신성한 사랑의 연속이다. 내 초대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 - 2013년 7월 21일)

“이 선교사업과 이 성지 소유지는 함께 합쳐서 나의 극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라. 이곳에서 수반되는 각 은총마다 다 그림을 그리는 한 붓놀림으로서 잘 배합하여 나의 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은 평가(인정)되기 위해서 화랑의 벽에 걸려 있는 미술품과 같다. 그러나 차이점은 그림은 외면으로 관찰되고 평가된다는 것이다. 나의 작품인 이 선교회는 내면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고 너희 마음을 영원히 바뀌게 함으로써 그 진가를 완전히 인정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림은 잠시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선교사업은 너희의 영원한 영원한 가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 신성한 뜻에 의해 설정되어 있다.”

“제공되는 모든 은총은 마치 캔버스(canvas화폭)에 그려지는 대가(거장)의 붓놀림처럼 개인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가져오기로 되어 있다. 나의 ‘캔버스’는 인간의 마음이다. 나의 붓은 여기에서 주어진 은총이다. 여기에 오거나 또는 메시지들에 의해 감동을 받는 각 영혼은 개인적이고 유일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은총을 받는다. 너희의 마음을 내 신성한 뜻에 일치시키고 너희의 자애로운 성부인 내가 너희를 거룩함의 극치의 작품으로 만들게 하여라.” (아버지 하느님 - 2013년 10월 14일) ■





모든 임신부들이  
태내의 귀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며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기도를 바쳐라

낙태종식을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를 소개하는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기도



주문 -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 \$12.95 더하여 발송 제 경비 전화 440-327-4532 ;  
온라인 주문 [www.RosaryoftheUnborn.com](http://www.RosaryoftheUnborn.com)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 성 십자가 현양 축일과 고통의 성모

2013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날 세상은 십자가를 경시한다. 희생의 고통은 좀처럼 설교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십자가에 매달린 내 몸에 대한 인망이 없어졌다. 온 인류를 위한 내 구원의 역할은 대개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때문에 뒷전으로 밀린다.”

“그러나 내 십자가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십자가에 대한 너희의 신심은 세상에서 내 영광이다. 나의 노력 즉, 수난과 죽음에 대한 (너희의) 이런 사랑은 너희에게 많은 은혜를 축적한다. 내 고귀한 성혈에 향한 너희의 기도는 사탄의 패배를 뜻한다. 십자가의 힘에 결코 무감각해지지 마라. 너희의 작은 희생으로 내 상처에 입맞춤하여라. 우리는 함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내 십자가는 찬양될 것이다.” ■

2013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예수님께서 비통한 성심을 드러내고 여기에 오시고 당신께서 채찍질 당하신 직후에 보이셨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오늘밤 나는 너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경우를 용서하기를 권한다. 요즈음의 죄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처럼 괴로워 뛰고 있는 비통한 내 성심을 공경하여라.”

“나는 지금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

“WAY  
OF THE  
CROSS”



# 마리아 축일 - 2013년 9월 14, 15일

## 2013년 9월 15일 - 고통의 성모 마리아 축일

성모님께서 고통의 성모님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또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거룩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도록 권유한다. 나의 가장 큰 슬픔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탄과 그의 모든 간계에 문을 열어 놓는 것이다.”

“내 고통의 성심은 내 아드님의 비통한 성심과 일치하여 된다. 우리 둘은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을 복음 메시지와 정반대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런 악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가고, 인간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며, 완강하게 잘못을 바로잡기를 거부하는지를 보고 있다. 명성과 지위, 존경에 대한 애착이 지도자들의 마음에서 진리를 대체하였고, 많은 영혼들을 잃게 해 왔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악을 훌륭하고 선한 것으로 선전하는 데 제공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는 천국에서 모든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 미래는 거룩한 사랑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다. 너희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대신 너희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에서는 결코 기쁨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사랑인 하느님의 신성한 뜻 밖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너희 마음을 진리에 내맡겨라. 그러면 내 아드님의 비통한 성심과 내 고통의 성심이 크게 진정될 것이다. 너희는 평화로울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 기쁨을 찾을 것이다.” ■

## 2013년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축일

사제들에게

성모님께서 고통의 성모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내 고통의 성심을 기념하여 나는 모든 성직자를 여기 이 성지로 초대하기 위해 왔다. 너희는 세상의 혼란에서 떨어져 여기에서 내 현존과 내 평화를 느낄 것이다.”

“너희는 사탄이 모든 소명의 원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자는 너희 일생에 사람들을 보내고 주의를 크게 방해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너희의 모든 여가 시간을 내 티 없는 성심에 맡겨라. 내게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순결, 너희의 거룩함의 보호를 요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 (사제들)의 성소(聖召 vocation, 소명 召命)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고 너희 자신의 영혼은 물론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에는 질투나 경쟁, 야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너희의 성소는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권력자들은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보복은 거룩한 사랑이나 어떤 성소에 속하지 않는다.”

“진리 안에서 일치하고 나를 도와서 영혼들을 구하게 하여라. 매일 너희 마음을 반성하여라. 어떤 죄악 즉, 거룩한 사랑을 거스르는 어떤 위반도 너희에게 밝혀지도록 내게 요청하여라. 언제나 성사를 너희의 우선으로 삼아라. 모두가 성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라. 매주 회개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희 성소(聖召)의 힘을 반영한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시게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를 피하지 마라. 너희가 오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의 성소는 내 보호의 망토 아래 있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





# 순례객 사진들



“너희 마음을 진리에 내맡겨라”





#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축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는 내게, 그중에서도





2013년 10월 7일

특히 낙태 종식을 위해 중요하다.”





# 지극히 거룩한 목주기도 축일 -





- 2013년 10월 7일





#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축일 – 2013년 10월 7일

“내 아드님의 지극히  
비통한 성심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 낙태  
종식을 위한 태아  
묵주기도를 바쳐라.”





## 2013년 10월 7일 거룩한 묵주기도 축일

(이 메시지는 여러 부분에 걸쳐 주어졌습니다.)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태아 묵주에 감싸인 비통한 예수 성심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이것이 천상이 지상과 맺는 평화 협정이다. 낙태 종식을 위해 태아 묵주기도를 바쳐라. 이것은 내 아드님의 비통한 성심을 위로해드릴 것이며 너희를 분열시키고 있는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계속해서 자멸의 길을 간다면 내가 그 결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줄 수 없다. 미래는 너희의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이 너희에게 주는 내 말들의 실현이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부디 깨달아라.”

“낙태는 진리의 타협과 권력 남용의 나쁜 열매, 곧 내 사랑하는 아드님의 성심을 슬퍼하게 하는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은 태아 묵주기도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낙태의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도와야 한다. 나는 너희의 도움을 간청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낙태 종식을 위한 태아 묵주기도 혹은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기도를 바치면 너희는 지금 이 순간 내 아드님의 지극히 비통한 성심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낙태)죄는 오늘날 세상의 마음의 자기 중심주의를 가장 요약해서 보여주며 하느님의 심판을 불러들인다.”

“너희의 기도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너희가 이곳에 참석해서 나는 매우 기쁘고 특별히 행복하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는 내게, 특히 낙태 종식을 위해 중요하다.”

“나는 또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태내에 평화가 있을 때까지 세상에 평화가 없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선을 보호하고 존중하시지만 악은 모두 반대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며, 나의 특별한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 복되신 어머니의 탄신(誕辰) 기념일

2013년 8월 5일

복되신 어머니의 탄신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내 생일을 기념하면서 나는 이 메시지들과 이곳 성지에 수반하는 모든 은총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주고 싶다.

희망 없이 기도하지 마라. 하느님의 성심은 열려 있으며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너희가 너희의 노력으로 세상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의로운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성심의 동정을 강요하도록 나를 도와라. 그것이 나에게 주는 너희의 선물이다. ■



2013년 8월 5일

복되신 어머니의 탄신(誕辰)

복되신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전부 흰옷을 입고 계시며 그분의 성심은 드러나 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비통한 성심을 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밤 나와 함께 (내 생일을) 축하해 주어서 고맙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 아드님의 비통한 성심에 대한 너희의 신심을 원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어떤 호의도 내 성심에 청원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만약 (너희의 청원이) 하느님의 뜻 안에 있다면, 너희는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오늘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 아버지 하느님 경당

새로 완성된 아버지 하느님의 경당이 이제 여러분의 즐거움과 감상을 위해 공개됩니다. 십계명과 아버지 하느님께서 주신 메시지들뿐만 아니라 독일 화가 주리어스 슈놀 본 카롤수벨트 (Julius Schnorr von Carolsfeld)의 작품인 아버지 하느님의 아름답고 예술적인 성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모임

##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

### 2013년 8월 3, 4일

복되신 어머니의 요청에 의하여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의 기도 동호회의 지도자들이 2013년 8월 3일과 4일 주말에 오하이오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소재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 이틀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마음에 복음 전파가 크게 필요한 시대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는 세계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봉헌하는 매일 기도를 바치기 위해 2012년 3월 4일에 복되신 어머니에 의해 형성된 세계적인 평신도 협회입니다.

2013년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CUHA) 회의 초대장을 세계적으로 내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8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회의

회의 전야에 받은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 된 성심에 봉헌된 특별한 이번 주말을 위해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영적 여정이 지구의 방방곡곡에 이르는 것을 너희의 기도 지향으로 바치기 바란다.” (2013년 8월 2일)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CUHA) 회의 개회식에서 우리의 거룩한 사랑의 새로운 주제가(主題歌) ‘사랑의 길’이 소개되었고 그 주말 내내 들려졌습니다. (CD를 이제는 하나 되신 성심의 책방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인 모린 스위니-카일 자매의 녹음된 환영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오늘날 파티마 메시지의 중요성을 연설하였습니다.

회의 연사들은 두가지 주요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세상의 마음의 봉헌이 이 시대에 적절한 이유, 그리고 세상의 마음에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참석자들이 서면 질의를 제출하였고, 그리고나서 그 제의들은 질의응답 패널 (Panel 토론회) 형태에서 토의되었습니다.

주말에 주어진 한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나는 하나 된 성심의 자녀회가 세상에서 내 목소리가 되기를 청한다..... 이제 우리 사이에 계약상의 협정이 유효하게 하여라. 이제부터 너희의 목표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바치는 봉헌기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2013년 8월 3일)

참석자들은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그들의 기도 그룹과 나누기 위해 귀가하였습니다.

#### 결론

금년에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CUHA) 회의를 보람있게 해 주신 강연자들과 참석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이래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모든 반응에 감사합니다. 한 참석자는 이와같이 표현했습니다.

“나의 자매와 나는 주말 내내 회의에 참석했으며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이 주말에 정력을 기울인 노고, 즉 잘 계획된 회의, 완전한 환영 프로그램 묶음, 맛있는 식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의 주말을 대단하게 하기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장소는 언제나 깨끗하고 티끌 하나 없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근면함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뒤를 돌아보고 하느님께서 어디까지 이 선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이 단체가 아직 원래의 주택에 있을 때부터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남편과 나는 우리의 네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이제 약 18년 후에 우리의 가정은 물론 이 선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다 큰 아이들은 아직도 오고 있으며 지금은 다음 세대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와 온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다시 지난 달의 훌륭한 주말과 여러분이 실행하는 모든 것, 특별히 매일 바치는 기도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나의 자매와 나는 우리의 소규모의 기도 모임을 굉장히 기대하고 격려되며, 하느님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회원들을 우리에게 데려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S.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안내 연락처: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440-327-8006 내선 238 Childrenofuh@holyllove.org



## 비통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 비통한 예수성심께 바치는 기도

“비통한 예수 성심이시여, 각 영혼이 매 현 순간 그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도와주소서. 영혼이 어떻게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 성심을 슬프게 하는지를 각 영혼에게 보여 주소서. 비통한 당신의 성심을 더이상 슬프게 하지 않도록 각 영혼을 진리의 빛 안으로 데려가 주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7월 17일)

### 비통하신 예수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

“사랑하올 예수님, 저는 제 마음을 다하여 비통하신 당신의 성심을 위로해 드리기를 바라옵니다. 주님께서는 매 현 순간 진리의 타협과 권한의 남용 때문에 파멸로 빠지는 영혼들을 보시나이다.”

“제가 매일 지는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비통하신 당신의 성심의 가시들과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주소서. 부디 양심을 바로잡아 주시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어떤 지위에서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2013년 7월 26일)

### 비통한 성심의 화살기도

(하루종일 톱톱이 바칠 기도)

“비통하신 예수 성심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 2013년 8월 1일)

### 비통한 성심의 중재기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당신 아드님의 비통한 성심에 대한 저의 신심을 헤아리시어 이 청원을 들어주소서: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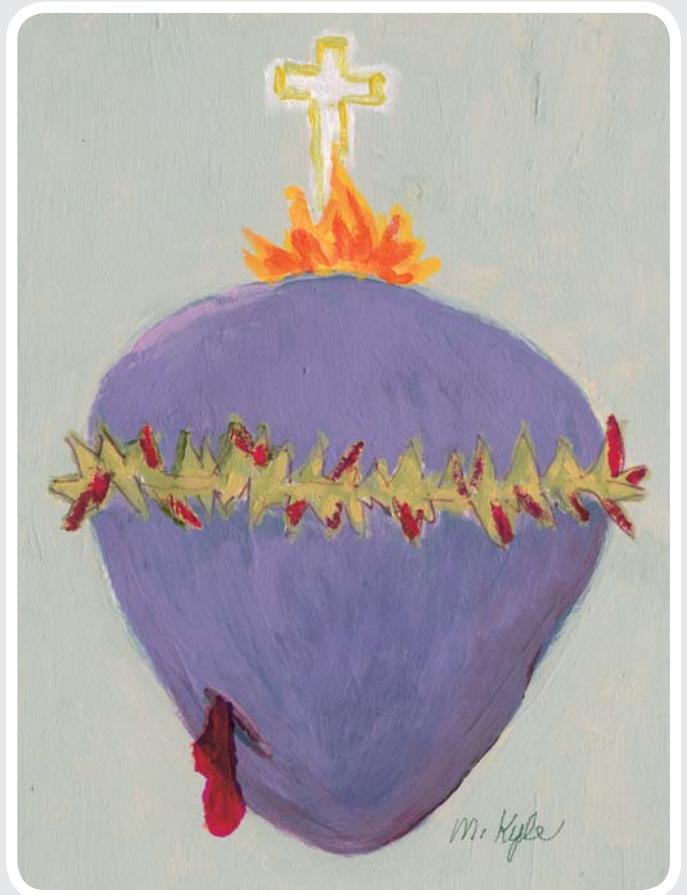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8월 4일)

### 민족들의 지도자들이 진리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기도

“지극히 비통하신 예수 성심이시여, 모든 민족들의 지도자들을 측은히 여기소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그들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을 고무시켜 국민의 복지를 위해 다스리게 하소서. 마음속 전쟁이 세상으로 넘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 평화의 승리를 위해 바치는 저의 기도와 희생을 받아주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9월 9일)



### 비통한 예수 성심께 바치는 애원 기도

“비통하신 예수 성심이시여, 저를 도우러 오소서.”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11월 4일)

### 비통한 성심에 대한 신심에 따르는 약속들

1.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는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지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질 것이다.”
2.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는 권한 남용에 의한 박해를 받을 때 의로움 안에서 인내의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3.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는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 2013년 8월 1일)



# 비통한 성심에 관한 메시지들 - 제2편

제2편에서 여러분의 반응을 위해 2013년 7월 31일부터 2013년 10월 16일까지 천상이 주신 비통한 예수 성심에 관한 메시지들을 제공합니다.

## 2013년 7월 31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비통한 내 성심에 보상하여라. 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빠지는 것을 매 현 순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통한 내 성심에 속죄 (보상)하면 너희는 나로 하여금 진리의 옹호를 위해 세상에 은총을 내리도록 촉진한다.”

“진리는 영혼들에 대한 사탄의 공격에 맞서는 내 무기다. 원수는 완전히 교활과 속임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미래를 예언하거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사랑의 진리에 충실할 수 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

## 2013년 8월 1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는 누구에게나 이행할 이 약속들을 세상에 주기 위해 왔다.”

1.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는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지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질 것이다.”
2.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는 권한 남용에 의한 박해를 받을 때 의로움 안에서 인내의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3.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는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4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지요, 당신 아드님의 비통한 성심에 대한 저의 신심을 헤아리시어 이 청원을 들어주소서: \_\_\_\_\_”

어려움에 처할 때 이 기도문을 암송하려라.”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은 비통한 내 성심에 바치는 기도, 비통한 내 성심에 바치는 봉헌 기도, 혹은 하루종일 틈틈이 바치는 간단한 화살기도가 될 수도 있다.”

“비통하신 예수 성심이지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2013년 8월 2일

### 천사들의 성모님 축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너희의 천상 어머니인 내가 너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적 개화를 통해서 혹은 지식에 의해서 너희에게 그 악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다시 한 번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내 아드님의 성심에 몹시 깊은 상처를 입히는 권한 남용에 대해 말하기 위해 왔다.”

“권력자는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무리에 상관 없이 누구보다도 지배[영향]하에 놓인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인도할 책임이 있다. 요즘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단지 직함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보지 마라. 그 직함을 가진 사람을 살펴보고 그가 진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라.”

“역사를 통해 독재는 거짓 안에서 형성되었다.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 인간에게 복종했기 때문이다. 하느님 보시기에 너희는 거짓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오늘 너희에게 말한다. 신중을 기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라. 너희의 양심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형성하여라.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권력의 적합 판정을 내릴 진리이며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어떤 오만한 명령이나 권력이 있는 법령에도 속지 마라.”

“나는 이 성지에서 너희에게 분별의 인장을 주고 있다. 그것을 활용하여라.” ■

## 2013년 8월 3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복리가 권한 남용으로 인해 위협 받고 있다. 이것이 비통한 내 성심의 큰 상처라는 것이 놀랄 일이겠느냐? 테러리즘 (terrorism, 폭력주의) 조차도 이 권한 남용의 열매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정부들이 이러한 형태의 폭력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지극히 비통한 내 성심에 보상하여라. 너무 늦기 전에, 세상이 영원히 바뀌기 전에, 이 칼이 내 성심에서 뽑혀지기를 기도하여라.” ■

## 2013년 8월 3일

예수님께서 비통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나는 세상의 마음이 내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과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왔다. 자유의지와 하느님의 뜻 사이에서 사랑과 신뢰에 대한 위반이 세상의 모든 오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 2013년 8월 4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기도문: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당신 아드님의 비통한 성심께 대한 저의 신심을 헤아리시어 이 청원을 \_\_\_\_\_ 들어주소서.”

“어려움에 처할 때 이 기도문을 암송하여라.”

주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들 중 셋째 약속 다음에 나오는 위의 기도문을 알리는 2013년 8월 1일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

### 2013년 8월 5일 복되신 어머니의 탄신(誕辰)

복되신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전부 흰옷을 입고 계시며 그분의 성심은 드러나 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비통한 성심을 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밤 나와 함께 (내 생일을) 축하해 주어서 고맙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 아드님의 비통한 성심에 대한 너희의 신심을 원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어떤 호의도 내 성심에 청원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만약 (너희의 청원이) 하느님의 뜻 안에 있다면, 너희는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오늘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 2013년 8월 6일

아버지 하느님의 성심인 큰 불꽃을 봅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 오늘날 내 성심은 진리의 왜곡 때문에 슬프다. 내 자녀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 그들 자신의 진리를 조작해 왔다. 내 아들의 비통한 성심은 비탄에 젖어있는 내 성심을 반영한다.”

“이 선교사업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단지 전체적으로 사회의 한 증상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회의론자(the skeptic)와 심판자(the judge)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는

그동안 줄곧 무시하면서 경솔한 판단들을 생각해 내며 믿지 않을 만한 이유들을 추적한다.”

“이 선교사업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들을 내게 다시 데려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여기 이 성지에서 그들에게 준다. 그러나 오늘날 내 자녀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

“내가 모든 마음 안에서 나의 정당한 통치권을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통치자와 지도자로서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경고하기 위해 왔다.” ■

### 2013년 8월 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다시 한 번, 지극히 비통한 내 성심의 벌어진 상처인 권한 남용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왔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이 침범될 때는 언제나 권한 남용이 있다. 말하자면, 권력자들은 공정하게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닌 권력을 지나치게 정당성없이 장악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직위에 수반되는 임무를 떠맡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또는 다른 세속적인 위치에 있는 지도직은 책임이 막중하다. 지도력은 지도자의 페르소나 (persona, 개별적인 존재)를 지니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거룩한 사랑에 감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거룩한 사랑에 근거를 둔 지도력은 공정하며 그 처세훈(處世訓)은 진리에 기초를 둔다. 이런 부류의 권위는 존경을 받는다.” ■

### 2013년 8월 8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계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타협되어 있다. 내가 진리에 대해 언급할 때 그것은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 왜곡된 진리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처럼 퍼진다. 이것이 정부와 종교계와 실업계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모든 부패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해답이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진리에 열려 있다.”

“봉헌된 삶을 살고 (골로 3:12-17) 진리에 충실함으로써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라. 이것은 비통한 내 성심을 위로하는 것이다.” ■

### 2013년 8월 12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고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저녁 나는 신성한 사랑으로서 너희에게 또다시 왔다. 나는 이 선교회를 받아들이는 너희의 신념에 대해 그리고 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실천하는 너희의 삶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왔다. 이것은 비통한 내 성심을 위로한다.”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 2013년 8월 12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이렇게 해서 즉, 영혼들이 그들의 구원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느끼는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너희가 비통한 내 성심을 위로할 수 있다. 해롭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진리의 타협은 극히 사소한 것이어도 한 영혼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의 현재와 미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여, 진리는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가장 중대한 문제와 판단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거룩한 사랑이다.”

“태내에서 파괴되는 생명을 지켜볼 때 나의 심한 고통을 생각해 보아라. 거짓과 지독한 권력욕에 근거한 지도력을 내가 얼마나 바로잡아주고 싶어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금전욕과 명성욕을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바꿔놓고 싶은 내 갈망을 생각해 보아라. 거짓 신들에 대한 애착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진리를 근절하는 것을 보는 내 심한 고통을 생각해 보아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현실은 다른 어떤 세대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다. 나는 여기 이 성지에서 그리해 왔던 것 처럼 개입하려는 노력 없이 방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직접적인 개입을 하려는 내 노력도 많은 사람을 여기에도 이끌 만큼 영향력을 갖춘 이들에게 경멸을 당한다.”

“그래서 나는 믿는 이들, 곧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비통한 내 성심을 위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를 거들어 이 시대의 온갖 악을 진리로 제압하게 하여라.” ■

## 2013년 8월 13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성심에 이르는 길이 너희들 중에 열려 있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의지로서 신성한 사랑에 내맡기는 것이다. 내 신성한 사랑은 비통한 내 성심에 보상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너희는 비통한 내 성심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내 신성한 사랑과 하나가 될 수 없다.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항상 노력하지 않느냐?”

“여기 이 성지에서 그리고 이 메시지들 안에서 나는 인류에게 외친다. 내 사랑을 혼자 있게 내버려두지 마라. 나는 단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가는 영적 여정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사랑을 통해 인류 자신의 구원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류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온다.”

“나를 따라라.” ■

## 2013년 8월 15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선박이 계속 떠서 있게 하는 밸러스트(ballast 바닥짐)는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겸손은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방어자이며, 이 둘 중에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영혼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는 진리이고 계시입니다. 이 똑같은 진리가 지구의 전반에 적용되고 각 영혼에게 하느님 앞에서 그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두려움으로 멸망할 것이며, 또 다른 영혼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 아버지께서만이 이 전체에 미치는 진리의 시간을 알고 계시니다. 그러나 영혼들은 이 은총의 순간을 위해서 겸손 안에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겸손은 중요한 지위나 세상의 주목을 찾지 않습니다. 겸손은 이 세상에서 그 지위에 자만심을 갖거나 그의 일이나 행동에 대한 찬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어떤 것이든 업적에 대한 인정을 피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고 주목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덕행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감명시키기 위해 행하는 겸손은 거짓된 것입니다. 겸손은 영혼과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영혼과 하느님의 성심 사이에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겸손의 결여가 비통한 예수 성심에 고통을 일으키는지를 알기 쉽습니다. 모든 죄는 거룩한 사랑을 벗어납니다. 모든 죄는 교만으로 인해 생깁니다. 교만은 거룩한 사랑과 겸손의 최대의 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에 깨끗이 씻겨지기를 매일 아침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 면전에서 여러분의 모습보다 더 이상으로 믿지 마십시오.” ■

## 2013년 8월 17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권력 남용과 진리의 타협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타락에서 협력자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다. 분명하게 도덕적 문제들인 낙태와 동성 결혼이 단지 비통한 내 성심의 이 두 고통으로서 정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사탄이 진리를 굴복시키고 죄를 권리로 정의하고 있는



방법이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옹호하려는 너희의 노력으로 내 비통한 성심을 진정시켜라. 많은 세력가들의 타협된 계획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여라.” ■

### 2013년 8월 20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지극히 비통한 내 성심을 꿰뚫는 가시들에 대해 말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왔다. 이 가시들은 모든 진리의 타협을 나타낸다. 오늘날 거짓의 영은 드물기 보다는 더 흔하다. 이것은 유행병 비율의 악성의 영적 질병처럼 되었다.”

“이 거짓의 병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덕적 타락과 지도력의 부패를 통해 그 자체를 나타내면서 정신에 피해를 입힌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진리의 남용을 치유하는 의약(醫藥), 말하자면 페니실린(penicillin)이다. 분명히,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비통한 내 성심의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희에게 질병을 가르쳐주고 그 치료법을 주기 위해 왔다. 만약 사람들이 오늘 너희에게 한 내 말을 마음에 새긴다면 세상의 마음은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

### 2013년 8월 21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또다시 비통한 내 성심의 고통을 너희에게 알린다. 권한 남용은 가정 내 폭력에서부터 독재 정치를 받아들이거나 독재 정치를 향하는 정부에까지 모든 범위에 미친다. 이 예들 사이에 많은 남용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에 대한 경의를 절대적 지배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것은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의 양심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내 성심은 계속해서 슬퍼할 것이다. 이것이 분별의 인장이 이 성지에 주어지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이유다. 절대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라. 너희에게 주어진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살펴보아라.” ■

### 2013년 8월 24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진실히 너희에게 말한다. 신앙을 잃은 모든 사람은 진리의 어떤 타협을 받아들였다. 신앙은 진리에 근거한다. 건전한 이성(理性, reason)은 진리에 근거한다. 사람들이

신앙의 교리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할 때 그들은 신앙을 잃은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신앙은 무형의 것에 대한 믿음이다.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만약 인간의 마음이 이 선물을 거절하면 그것은 다른 곳으로 간다.”

“현세에서 신앙의 영적 가치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지만, 이 사실이 조금도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나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내 어머니를 ‘신앙의 수호자’로서 보내드렸다. 신앙은 부정한 지도부와 현대 공학 기술과 진리를 손상시키는 다른 모든 거짓 신에 의해서 위협에 처하게 되고 위태롭게 된다. 사람들은 내 눈에 의로운 것보다는 차라리 정치적으로 정당한 것이 낫다.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보다 그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우위(優位)에 둔다.”

“이것들이 비통한 내 성심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게 된 이유들이다. 수백만의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며 지켜보는 나를 위로하여라. 지옥은 영원히 지속된다. 지금 이 순간은 어느덧 지나가고 있다. 보람있게 보낸다면, 지금 이 순간은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수많은 타협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신앙을 보호해 달라고 내 어머니께 청하여라.” ■

### 2013년 8월 25일

아버지 하느님 성심의 불꽃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는 나, 영원한 현재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빈곤의 시기와 풍요의 시기, 혼란의 시기와 명석함의 시기, 거짓의 시기와 진리의 시기가 있다. 지금은 내 아들의 재림을 위한 준비의 시기다. 이 준비는 큰 시련의 바람을 그리고 신앙의 결핍과 자기중심주의의 폭풍을 우연히 만난다.”

“나는 인류에게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인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안에 바람과 폭풍을 피할 곳을 제공하였다. 나는 구원으로 가는 확실한 길인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가는 영적 여정의 길을 제공하였다. 나는 신앙의 수호자의 추가 보호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 시련의 시기에 바람과 폭풍으로부터의 이 모든 안전은 내 아들의 비통한 성심에 대한 신심의 안정된 모범으로 강화된다. 이 신심은 이 시대의 바람과 폭풍의 재난을 약화시킨다.”

“내 충실한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는다. 나를 저버리지 마라.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모든 위선과 거짓을 피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영원한 신성의 사랑으로 너희를 감싼다.” ■

### 2013년 8월 2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낙태되는 오늘날 세상의 마음의 정신적 경향의 두드러진 한 예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 바란다. 낙태는 잉태의 순간에 생명의 실재에 대한 진리의 타협이다. 낙태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거스르는 이 범죄를 지지하는 입법자들에 이르는 권력 남용이다.”

“인간은 그의 목적을 위해 하느님의 법을 바꿀 수 없다. 십계명이 매일 즉석에서 유린되고 있는 오늘날 이곳에서 천상의 개입이 무시되고 심지어 모독을 당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겠느냐?”

“오늘날 너희는 불가지론(不可知論 agnosticism)의 모든 조짐을 보고 있다. 교회 출석률(예배 참가률)이 낮아진다. 신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을 받고 있다. 세상은 온갖 새로운 형태의 공업(과학) 기술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기도와 희생은 방치되어 있다.”

“일반 대중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지혜가 부족하다. 만약 진리가 그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그는 현실·실재를 위태롭게 한다.”

“세상의 마음이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휩싸임에 따라 비통한 내 성심의 이 모든 죄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오늘 나는 각자에게 진리와 진리를 알아보는 지혜를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을 위해 기도하기를 요청한다.” ■

## 2013년 8월 26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의 하나 된 성심 채플(Chapel)에 있는 비어있는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거룩한 사랑이 없는 비어있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쳐라.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내 아드님의 비통한 성심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

## 2013년 8월 29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예전처럼 신앙의 상실에 대해 부디 오늘 나와 함께 슬퍼하여라. 내 교회들은 비어 있다. 이것은 마음의 공허를 반영한다. 이제 진리의 온갖 타협은 받아들여지고 유행하기까지 한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도덕의 타락(도덕성의 쇠퇴 경향)과 폭력의 증가에서 반영된다.”

“자고로 진리를 지지하기 위해 내가 의존해 왔던 사람들이 자주 그들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진리를 손상시켜 왔다. 어떤 사람들은 독선의 악한 함정에 빠져있다. 그들의 양 떼를 애정을 기울여 지키고 거룩한 사랑을 통한 구원을 장려하는 사람들은 적다.”

“많은 지도자들이 죄를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양 떼에 영합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내세에까지 그들을 따라갈 진리의 훼손이다. 그들이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쁜 것은 이곳 발현 성지처럼 천상의 개입에 반대하는 것이다. 만약 한 지도자의 의견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면 그 지도자는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불행히도 실정은 그렇지 않고 있다. 더욱 슬픈 사실은 직함은 의로움이 수반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직함을 넘어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천상의 계획에 반대하는 의제나 동기를 보호하는 마음은 불행하다. 이것이 이전에는 내가 믿었던 지도부 내에 파벌을 만들어 왔던 정신적 상태다.”

“이 모든 것을 밝히는 일은 오랫동안 내 성심에 있어 왔다. 나는 비통한 내 성심의 어려운 처지를 세상이 깨닫도록 돕기 위해 이 사실들을 오늘 함께 나눈다.”

“이 모든 것을 알려라.” ■

## 2013년 9월 7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전쟁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잔학 행위는 결코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선택이 아니다. 이것들은 언제나 타협된 진리와 권한 남용에서 일어나는 선택들이다. 세상이 재난에 처하게 될 상태에 있음에 따라 비통한 내 성심은 괴로워하며 고통친다.”

“진리가 진리로 인정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 인간의 품위의 가치는 어디로 갔느냐? 나는 내 정의(심판)을 세상에 넘쳐 흐르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일 너희가 내 정의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나를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나는 인류가 거룩한 사랑의 은총을 통해 자신의 양심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이에 비추어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다. 거룩한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오류를 파괴하는 무기다. 이 진리는 세상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대량 파괴의 무기다.” ■

## 2013년 9월 9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부디 이 기도문을 알려라.”

민족들의 지도자들이 진리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기도

“지극히 비통하신 예수 성심이시여, 모든 민족들의 지도자들을 축은히 여기소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그들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을 고무시켜 국민의 복지를 위해 다스리게 하소서. 마음속 전쟁이 세상으로 넘치지 않게 하소서.”

“모든 마음속 평화의 승리를 위해 바치는 저의 기도와 희생을 받아주소서. 아멘.” ■



2013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예수님께서 비통한 성심을 드러내고 여기에 오시고 당신께서 채찍질 당하신 직후에 보이셨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오늘밤 나는 너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경우를 용서하기를 권한다. 요즈음의 죄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처럼 괴로워 뛰고 있는 비통한 내 성심을 공경하여라.”

“나는 지금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

2013년 9월 15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성심이 칼에 찔린 고통의 성모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와 희생으로 내 아드님의 지극히 비통한 성심과 나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의 성심을 가라앉혀라. 너희의 모든 기도와 희생이 거룩한 사랑에서 우러나오게 하여라. 그 기도와 희생은 소중할 것이며, 지금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처럼 너희는 축복 받을 것이다.” ■

2013년 9월 21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질투가 진리를 타협하고 진리의 분별을 왜곡한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다. 종교계에서 질투는 타인이 체험하는 성령의 활동에 대해 불안감을 야기한다. 이것은 천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인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에서, 그리고 영역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행위에서 드러난다.”

“얼마나 많은 훌륭하고 경건한 활동이 질투심에 의해서 좌절되어 왔는지! 천상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결합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질투심이 많고 불안정한 마음들은 진리의 영 안에서 번영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니 이 질투들이 내 아드님의 비통한 성심을 몹시 슬프게 해 드린다는 것을 알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들은 질투의 오류가 있는지 그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한다.” ■

2013년 9월 25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단체에 스며드는 오류는

진리에 대한 배신의 직접적인 결과다. 내 성심은 영혼들이 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한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의로움 안에서 산다고 믿는다. 그들이 진리를 배반해 온 사람들을 믿기 때문이다. 진리는 거룩한 사랑과 한 본체인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날 폭력과 증오를 조장하는 많은 거짓 종교들이 있다. 나는 이것들 중 아무것도 천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려 왔다. 나는 너희에게 심정(heart 心情)과 지성(mind 知性)의 일치(consistency)를 요구한다. 나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일치하기를 요구한다.” ■

2013년 9월 27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사랑에 너희가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지극히 비통한 내 성심에 보상하여라. 너희의 개인의 거룩함의 깊이는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내말김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2013년 10월 16일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축일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요즘에는 세상이 처한 곤경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예수 성심이 비통한 성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악이 그렇게도 때지어 있음에도 인식되지 않은 적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지극히 심각한 파멸의 길 즉,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진리의 타협은 언제나 혼란에 의해 드러납니다. 혼란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권한 남용은 진리의 타협과 밀접하게 유사하며 진리의 타협이 있는 후 뒤따라 일어납니다. 어느 쪽도 그것들의 본체가 습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의로움의 옷을 입고 옵니다.”

“항상 진리를 옹호함으로써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을 분별함으로써 비통한 예수 성심을 위로해 드리십시오. 하느님께서 참된 진리의 실재(reality)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주실 것입니다.” ■

2013년 10월 1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사탄은 언제나 그자의 부패가 세상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을 먼저 타락시킨다는 것을 너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왔다. 오늘날 정부와 종교 그리고 세상의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거룩한 사랑과 같은 강력한 선교사업을 일으키면서 사탄의 책략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선교사업은 진리를 다루며, 다만 예민한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비통한 내 성심에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며 내게 순명을 맹세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권한 남용과 진리의 타협은 많은 영혼들을 지옥 (파멸)에 떨어지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위 및 또는 직함을 기초로 하여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신성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상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들을 읽지만 오만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 자신을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자애로운 충고에 그들 자신의 악의에 찬 해석을 가하기까지 한다. 이런 자만심이 진리를 위태롭게 한다. 이것이 드러난 사탄의 부패이다.”

“나는 진리와 기도 안에서 일치하기 위해 이곳에 온다. 너희가 겸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

## 목주기도에 관한 해설

### 2013년 10월 7일

(이 메시지는 여러 부분에 걸쳐 주어졌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어떤 것들은 더 이상 계속해서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매우 중요한 것들의 하나는 신중하게 바쳐진 목주기도의 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손에 들고 있는 목주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무기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므로, 그자는 목주기도를 단념시키고 목주기도의 공덕을 무시하게 하기위해 있는 힘을 다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목주기도는 천국에 이르는 생명줄이다. 너희의 어머니인 나는 목주기도를 통해서 내 은총의 영양물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나는 강력한 덕행으로 너희의 영혼을 강화하며 너희가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목주기도는 사악한 의향을 단념시키고 더 깊은 개인의 거룩함을 성취하도록 격려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목주기도로 낙태와 전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온갖 종류의 부정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요즘 배교는 신자들을 분리하고 나의 가장 열정적인 자녀들까지도 혼란시키고 있다. 너희에게는 이 메시지들과 이곳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 (메시지들, 은총들, 그리고 축복들)의 영성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무도 너희 영혼의 내적 비판 (판단)의 진행에 대해 지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곳에서 단념되고 중단되고 있는 많은 목주기도가 심판 때 중요할 것이다.” “목주기도를 바칠 때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기도하여라. 말로만 암송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희의 기도는 더욱더 강력해진다. 나는 너희의 모든 기도를 받아서 나 자신의 기도에 합친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내 사랑하는 아드님에게 바친다. 예수님께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영혼들의 복지를 모든 목주기도, 모든 기도의 목적을 위해 합치하신다. 목주기도 전체를 다 바치거나 단 몇 번의 성모송이라도 모든 기도는 다 가치가 있다.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아무도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목주기도는 오늘날 세상에서 하느님 자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분의 자비에 매달려라. 너희의 목주기도에 매달려라. 그것은 너희가 내게 속해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알려주는 표징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애정 어린 마음으로 목주기도를 바칠 때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 암송되고 있는 다른 모든 성모송에 너희 기도를 일치시켜라. 그렇게 하여 나는 은총의 더 강한 영양물을 너희 마음과 너희 삶 속에 보내줄 수 있다. 이런 목주기도는 가장 냉혹한 죄인을 연옥에서 해방시키고, 가장 무자비한 마음을 개심시키며, 성소를 강화시키고, 불화를 해결할 수 있다.” “낙태 종식을 위한 태아 목주기도를 바치라는 내 부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이것은 이 악을 멈추게 하는 희망이다. 온 천국이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증한다. 이에 관련된 너희의 노력은 비통하신 예수 성심을 위로한다.” “사실, 모든 거짓의 아버지는 너희를 거룩한 목주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 자녀들아, 너희 구원의 원수가 목주기도의 힘을 알고 있다면 너희 역시 이 기도의 힘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 기도의 가치에 대한 진리 안에서 너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는 용기 안에서 너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왔다. 너희의 목주기도는 사탄의 패배다.” ■



# 질의 응답

## 진리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2013년 8월 23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진리를 옹호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진리로부터 어떤 벗어남이나 진리의 옹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거짓의 구성 요소로 만든다.”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 나의 사명은 진리를 옹호하고 밝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진리의 빛에 포기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죄를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선교사업은 영혼들을 진리의 빛으로 이끄는 것이 전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상이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메신저와 메시지들과 이 선교사업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켜왔다.” ■

## 가장 위대한 영적 보물?

2013년 8월 14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많은 신심과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심오한 영적 여정을 너희에게 맡겨 왔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영적 보물은 틀림없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이다. 이 두 개의 큰 계명은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토대임에 틀림없다. 토대는 여기저기에 뿌려지는 표면의 조미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여라. 토대는 구조 즉, 이 경우에 너희의 영적 삶이 구성되는 기초다.”

“너희 마음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증진되고 이 진리로 강화된다면 너희는 미래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 두려움을 마음에 품게 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편리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거룩한 사랑으로서는, 너희가 필요할 때 너희에게 계획이 주어지고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여야라.”

“현재로는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사랑이 틀림없이 너희 마음을 채우는 계획이다.” ■

## 분별의 인장이 중요한 이유?

2013년 8월 17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오늘날 거짓의 영이 창조 역사상 전보다 더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기 바란다. 이것은 인류가 진리의 분별을 전반적으로 단절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오늘날 너희 주위에 거짓된 신과 거짓된 종교들, 폭력과 테러리즘, 기만적인 습관들이 아주 많은 것은 이 거짓의 영 때문이다. 오늘날 진리는 매우 드물고 거의 수요가 없는 필수품이 되고 있다.”

“이것이 요즈음 분별의 인장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너희가 분별해야 하는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

##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이 될 수 있는 방법?

2013년 8월 17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직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라라. 너희 자신의 구원은 이 노력으로 포장된 은혜일 것이다. 이 노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아무도 너희의 애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거나 너희의 시간과 노력과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반복하는 나의 부름인 겸손한 사랑을 필요로 한다. 어떤 덕행도 절대로 자랑하지 마라.”

“만약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이 된다.” ■

##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방법

2013년 5월 31일

모든 성인들의 여왕이신 마리아 축일 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은 너희가 (만유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 사랑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사랑 안에 살 때,) 너희는 지금 말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마음속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희는 너희 삶의 모든 측면을 이 원칙에 신뢰하여 맡기게 된다.” “(거룩한 사랑 안에 살면서)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너희는 뿌루통한(토라지는) 영이나 용서하지 못함의 영에 협력하지 않는다. 너희는 무례한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또한 너희는 신체적 외모나 명성, 권력이나 너희 자신의 의견에

대한 애착과 같은 세속적인 허영심에서 물러난다. 이런 허영심은 너희에게 환멸을 준비시킨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과 너희를 통한 그분의 활동을 신뢰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큰 뜻을 품는다. 너희는 지상에서 눈에 보이기 위해서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실천한다. 너희는 거룩한 사랑을 통해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한다.” ■

## 실책에 있는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

2013년 7월 6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남의 흠잡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본다면 그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넘어가라. 거룩한 사랑은 일치하라는 부름이고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현 순간이 주어진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제각기 개선해야 하는 그 자신의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결함에 관해서는 잘 깨닫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너그럽게 보아 주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이 겸손이다.” ■

## 남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방법

2013년 7월 3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가난하거나 부유한 사람,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과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모두를 겸손으로 동등하게 대하여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친절과 인내로 대하셨다. 그분께서는 결코 영혼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잡담하시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오하려 똑같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에게 접근하셨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논할 때, 너희는 분열만 일으킨다. 너희는 판단하는 것을 부추긴다.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님의 활동을 제한한다.” “나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일치로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너희에게 권유한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잘못을 찾아내지 말고 너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거룩한 사랑이 아닌 것을 밝혀라. 이것이 너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거룩한 심방들을 통과해 나아가는 방법이다.” ■

필립보서 2:1-4 [일치와 겸손]  
야고보서 4:11-12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2013년 10월 21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기독교인(Christians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 단체들에 비해

더 적은 권리를 갖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사실, 그 때는 지금 너희에게 다가가 있다. 요즘에는 죄와 오류를 묵인하는 것이 매우 ‘유행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추세를 따르지 마라.”

“너희는 진리 즉, 십계명의 진리 안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거룩한 사랑은 십계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선교회는 진리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다만 확고할 뿐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은 각 영혼의 의무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죽음은 최종적이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너희의 최후의 심판 때 하느님과 교섭은 없다. 하느님의 심판은 최종적이며 영원하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의 구원을 결정한다. 진리에 대한 너희의 응답에 따라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파멸을 선택하게 된다. 너희는 너희의 영세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하느님께서는 그 결정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인기있는 유행이나 선과 악에 대한 해석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거룩한 사랑 즉, 십계명에 따라 심판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론이나 권위, 지위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계명을 다시 정의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사랑에 따라서만 심판하신다.”

“이것을 알려라.” ■

## 실속을 차림

2013년 5월 16일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이 세대는 대부분이 실제로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그들 자신의 구원입니다. 양심은 무질서한 야망에 의하여 둔해졌습니다. 성령의 불은 탐욕의 교만에 의하여 꺼져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여기 이 성지에 오시거나 당신의 천사들이나 당신의 성인성녀들을 여기에 보내시는 이유가 그분의 모든 노력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게 무시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양 떼를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로 먹이를 주고 계십니다. 각 메시지는 개인의 거룩함으로 부르는 타오르는 불꽃 모양의 혀와 같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성심은 이 메시지들과 여기에서 제공된 모든 은총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 질투와 거짓된 분별에 사로잡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적이 부추기는 무신론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





# 영적 여정

##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 티 없으신 마이랑 성심 - 거룩한 사랑 - 구원 (제2부)

‘영적 여정 하기’ 시리즈의 제9편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하면서,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의 계시에 대한 메시지들을 검토하는 제2부 를 시작합니다. 2000년 8월 24일의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첫째 심방을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의 첫걸음으로 요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안내서를 설명하기 시작하려고 왔다. 내 성심의 심방들이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상본 안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은 회개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이 이르는 영적 여정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심과의 이 일치는 함께 나누는 수난과 승리를 묘사한다.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다. 내 거룩한 성심은 새 예루살렘이다.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은 거룩한 사랑이다. 나의 거룩한 성심은 신성한 사랑이다. 영적 여정은 거룩한 사랑으로 시작한다. 거룩한 사랑 (첫째 심방, 성화와 구원)은: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거룩한 예수 성심의 첫째 심방; 연옥의 단계 이다. 이 심방에서 눈에 띄는 잘못과 죄들이 영혼에게 밝혀진다. 그는 거룩한 사랑 (회개)에 내맡기거나 계속해서 잘못하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그가 회개를 선택하고 그의 가장 명백한 잘못을 극복하면, 내 성심과 신성한 사랑의 다음 심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시리즈의 제8편에서 언급되었던바와 같이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여 거룩한 사랑에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을 내맡김 (또는 진행중인 마음의 회개)의 과정이 개인의 거룩함과 성화를 향해 따라가는 말하자면 청사진 혹은 도로 지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그분의 거룩한 성심 (하나 되신 성심)

의 지성소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은총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2001년 8월 28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이 도로 지도를 설명하셨습니다 - “나는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계시는 신학 교육이라는 것을 자매가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왔습니다. 자매님이 성경의 깊이나 신학 공부의 극치를 추구하면, 자매는 구원을 향하는 (이것보다) 더 간략한 길을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정점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매님을 통하여, 간단해 보이는 영적 도로 지도를 세상에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여정의 깊이를 이제 막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매님 스스로는 이 복잡한 계시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여정 전체는 사랑을 통하여 신뢰에 찬 내맡김에 기초를 둔다는 것을 자매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자매님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자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가르침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매님은 이 신성한 심방들을 통해 가는 자매의 여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자매님 앞에 놓는 장애물들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우리 앞에 놓는 이 장애물들은 우리의 잘못들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거룩함을 증가시키기위해서 천상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시입니다. 2003년 11월 28일에 주어진 메시지에서 -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자매들아, 그의 잘못이 그에게 밝혀지는 영혼은 회개와 거룩한 사랑인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첫째 심방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 영혼을 이 성심의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오직 그의 회개뿐이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주어지고 있는 은총과 협력하고 있으며 나의 승리가 그 영혼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나는 모든 영혼이 나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성심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화되고 신성한 사랑의 내 성심 안에서 나에게 올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되풀이해서, 이 시리즈의 제8편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영혼의 계속되고 있는 회개와 참회의 이 과정은 먼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과 거룩한 사랑의 제거와 정화의 불꽃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제8편에서 인용한 2000년 10월 20일의 메시지를 되풀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 된 성심의 계시는 마음의 회개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성한 뜻과의 완전한 일치 때까지의 완벽한 영적 여정을 나타낸다.”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이 거룩한 사랑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유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위대한 두 계명을 말한다. 영혼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 두 계명을 지키며 살기 시작할 때 그는 회개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 그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첫째 심방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이다. 이 심방을 두려워 하지 않고 들어가는 열쇠는 신앙의 수호자이신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다. 내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면, 사탄은 달아난다.”

“신성한 뜻과의 완전한 합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다음의 심방들은 전부 내 거룩한 성심 안에 있으며 그것이 신성한 사랑이다. 내 어머니의 성심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이고, 내 성심은 새 예루살렘이다.”

“내 은총은 내 성심의 심방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영혼의 노력에 따라 수반되고 아주 잘 비례한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일치하는 길은 그분의 거룩한 성심의 가장 깊은 심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이 심방들을 거치는 진척은 영혼이 자신을 깊이 자각하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매 순간마다 거룩한 사랑, 하느님의 뜻에 내맡기기를 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12월 28일의 한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처럼 마음의 회개가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일치하는 길은 그분의 거룩한 성심의 가장 깊은 심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이 심방들을 거치는 진척은 영혼이 자신을 깊이 자각하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매 순간마다 거룩한 사랑, 하느님의 뜻에 내맡기기를 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12월 28일의 한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처럼 마음의 회개가 수반하는 것입니다.

“나의 메시지 전달자야, 너에게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나는 내 성심의 가장 깊은 심방들의 문을 공개하였다. 이 심방들을 통하여 진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해지는 자각 즉, 너희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에 반대되는 특징을 자각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남들을 도와서 이해시켜야 한다. 여기서 솔직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사랑에 완벽하지 못한 부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따라서 그는 그 잘못을 고칠 수도 없다.”

“네 영혼 속에 있는 교만한 부위는 조금씩 압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영혼이 필요로 하는 이 많은 영적 청소를 본다면 압도되기 쉽다. 그러나 너는 네 영혼의 대청소를 혼자서 하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돕겠다. 아무도 생각만으로 겸손하거나 용서하게 되지 않고 진실로 겸손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마음속에 참된 겸손이 뿌리내리도록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 영혼 홀로 이 성덕을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역시 그 영혼의 조력없이 마음속에 겸손을 넣어줄 수 없다.

용기 있는 영혼은 그의 집 어디가 청소되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자만심이 드러나는지 자백해야 한다. 그러면 그와 나는 함께 그 교만을 극복할 수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먼지가 쌓인 부위를 찾아내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들 자신의 결함을 처음으로 깨닫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폭로다. 그러나 그들이 요청할 만큼 겸손하면, 나는 그들을 뒷받침할 것이다. 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있는 그대로 훌륭하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탄을 알아보고 극복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네가 내 성심에 진출하고 싶지만 영적 청소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청하러 왔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2001년 9월 10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영적 교만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상이 여기에서 가르쳐주시는 것 즉,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관한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것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때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했던 같은 영적 여정입니다. 바리사이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이 영적 교만은 사람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영적 교만의 사람은 그의 처지를 영적으로 만족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신성한 체합입니다. 메시지와 그것이 맺는 열매들이 그의 주변에 두루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을 알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눈가리개를 하고 인도되거나 눈가리개를 벗기기를 마다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그가 그의 길을 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신뢰에 찬 내말씀에 대한 모든 것은 자유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 교만으로 인해 영혼이 그가 정신적으로

적절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영혼은 첫째 심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의 의지를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실은 심오한 이 메시지에는 첫째 심방으로 들어가는 많은 은총이 따릅니다. ‘네’라고 겸손한 대답만 필요하다.”

우리가 이 메시지들에서 아는 바와 같이, 영적 교만 때문에 영혼은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 여정에서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에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의 심방들을 거처가는 진척으로부터 자신을 저지하거나 방지하도록 (사탄의 유도로 안출된 그 자신의 자유 의지로) 장애물을 놓거나 우회합니다. 우리는 제4편과 제5편 - 장애물과 혼란에서 교만의 이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영혼이 그 자신을 하느님과 이웃의 앞이나 먼저 놓이게 함으로써 거룩한 사랑에 반대할 때마다 그 영혼은 무질서하고 과도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교만)의 죄를 범한다는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주님의 거룩한 성심에 들어가고 성심을 거쳐 전진하기를 갈망한다면, 그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의 자기만을 위한 사랑과 억지를 거룩한 사랑과 하느님의 뜻에 신뢰하여 내맡겨야 합니다. 마음의 회개로 알려진 이 과정은 복되신 어머니의 성심에 전시된 그분의 겸손과 믿음을 통해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인 첫째 심방 안에서 시작합니다. 이 요점이 2001년 1월 25일 하나 되신 성심의 계시에 관해 주어진 메시지에서 설명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신비인 구원, 거룩함, 완덕, 순응, 그리고 일치에 대해서 더 강요하기 위하여 왔다.” “오늘날 이 세상 인구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다. 즉, 그들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다. 회개는 나의 어머니 성심의 은총을 통해서 온다. 따라서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첫째 심방이다. 그것은 거룩함, 완전함, 순응, 그리고 일치로 통하는 대기실이다.”

“나의 어머니의 성심은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그의 이웃을 그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위대한 두 계명인 거룩한 사랑이다. 이 두 계명을 지키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그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는 영혼은 나의 어머니의 성심이며 거룩한 사랑인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첫째 심방에 들어가야 한다.”

“일단 영혼이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에 들어가면, 어머니 성심의 불꽃인 거룩한 사랑의 불꽃으로 인하여 그의 가장 뚜렷한 잘못들이 드러난다. 그가 은총 안에서 인내심을 가지면, 이 잘못들은 타버려 없어지고, 그 영혼은 개인의 거룩함인 우리 성심의 둘째 심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 이제 그는 신성한 사랑과 나의 거룩한 성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영혼이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인 하나 된 성심의 첫째 심방에 들어감에 따라 성모 성심의 불꽃으로 영혼의 가장 큰 잘못이 깨끗이 씻어집니다. 이것은 영혼이 연옥의 정화의 불꽃에서 경험하는 것과 대체로 같은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영혼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함에서 그의 영적 진전을 방해하는 것을 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2006년 4월 5일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위한 메시지에서 성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 인식은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서 오는 그리고 무시할 수 없고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큰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의 피신처가 몇몇 소수에게만 주어진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라. 그분의 성심의 피신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모든 마음이 이 거룩한 피신처로 몹시 긴급하게 불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

“너희는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에서 소중한 첫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나의 거룩한 성심인 신성한 사랑 안으로 뛰어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직 내 어머니의 성심의 중재를 통해서만 모든 영혼들이 신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신성한 사랑을 본받을 수 있다. 내 어머니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순수한 성심의 불꽃을 통해 영혼에서 가장 큰 죄악을 제거함으로써 각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거룩한 사랑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신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영혼들이 그들의 실제 보다 더 도덕적이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강요하는 것은 추정과 독선에 불과하다. 이것이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진리와 겸손을 받아들이기 위해 매일, 심지어는 매시간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사탄이 세상을 혼란의 장막으로 덮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실제의 길을 알 수조차 없다.” 그러면 서서히 영혼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거룩한 사랑으로 대체하여 정화될 때 그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그의 신뢰를 깊게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하느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더 깊이 아집을 하느님 뜻에 내맡깁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에 대한 큰 욕구 때문에 더욱더 영혼이 평화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1년 2월 14일 메시지에서 내맡김의 이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성심의 친밀감은 지성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인간의 의지를 영적인 내맡김을 통해서만이 그 영혼이 이 거룩한 심방들로 인도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협력이다. 영혼이 내맡기고 심방들의 문이 열린다. 나는 영혼이 무엇을 내맡기는지, 그의 내맡김의 깊이를 알고, 나는 또한 영혼이 고집하는 것을 안다. 나는 그가 어떻게 자기 인식의 은총을 받아들이는지, 또는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는지 안다. 나는 사랑의 계명에 내맡김의 가치에 따라서 영혼의 내맡김의 공로를 판단한다. 어떤 영혼들은 남의 결점을 판단하고, 그들 자신의 결점은 무시함으로써, 내 성심의 심방들을 거치는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 자신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째 심방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러하여 첫째 심방에서 영혼은 그의 가장 큰 잘못과 죄악을 극복하려고 노력할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내맡김의 증진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분심과 죄의 원인을 피하면서, 성경과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학습하면서, 성사 생활을 하면서 (가톨릭 신자), 육체적, 정신적 자선 행위에 인색하지 않으면서, 그리하여 자기만을 위한 사랑과 아집에 집중하지 않고 거룩한 사랑과 하느님 뜻에 중시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골퍼(golfer 골프 치는 사람)가 그의 골프 스윙(golf swing 골프 휘두르기)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한 영혼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사랑의 완덕의 길이 됩니다.

일단 첫째 심방인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 들어가면, 영혼은 2011년 5월 9일에 복되신 어머니께서 주신 메시지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거룩한 사랑의 정화시키는 불꽃을 통해서 정화되고 거룩한 사랑에서 완벽해 집니다. - “나는 나의 티 없이 깨끗한 성심의 불꽃,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첫째 심방인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 대해 너희에게 설명하기 위해 왔다. 이 불꽃 안에는, 말하자면, 다른 여러 개의 칸이나 방이 있다. 이 불꽃의 첫째이며,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영역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는 영혼들을 위한 단계다. 많은 영혼들이 이 거룩한 불꽃의 영역에서 긴 세월을 보낸다. 그 이유는 자신의 교만이 그들의 죄나 약점을 인정하기를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혼이 서서히 자신의 수많은 행동 뒤에 숨겨진 (잘못된) 의도와 자신에게 죄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영혼은 내 성심의 불꽃의 다음 영역인, 회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영혼은 이 단계에서 사탄이 좋아하는 함정인, 세심증에 시달리면서 양심의 회생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영혼은 겸손으로 이 장애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내 성심의 불꽃에서 보다 적게 강렬한 영역은 가장 많이 회개한 영혼들을 위한

곳이다. 영혼들은 자신의 삶이 보다 한층 더 나아지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구한다. 이 영역은 내 티 없이 깨끗한 성심의 불꽃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다.”

“거룩한 사랑의 정화의 불꽃 안에서 모든 영역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영혼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둘째 심방으로 기꺼이 건너가면서, 신성한 사랑 안에서 완덕을 향한 자신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윽고, 이것들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화의 단계들이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적합한 통로가 되어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거룩한 사랑에 내맡길 때, 그가 아집을 정화하고 하느님 뜻 안에 완전해지면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의 불꽃의 구분들을 지나서 진전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신성한 사랑의 불꽃인 하나 되신 성심의 둘째 심방, 거룩함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동안 그의 내맡김 과정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영혼이 오히려 그의 자유의지를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삶에 내맡에 따라 그는 더욱더 하느님의 뜻에 순응과 일치에로 변형됩니다. 이것은 2006년 5월 15일에 주어진 메시지에서 설명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 중에 여러분의 죄악을 태워 없애달라고 청하는 불꽃입니다. 여기에 그것이 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심방인 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은 우선 영혼의 삶에 나타나는 죄의 부분들 위에 빛을 비추어줍니다. 점차 그 영혼은 이러한 죄들을 멀리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거룩한 사랑을 선택하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유의지가 누그러지고 영원하신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 변형됩니다. 이 변형은 마음속에 하느님의 뜻이 거할 때는 언제나 여섯째 심방까지 시시각각 계속합니다.”

지금 말한 것이 2001년 2월 1일에 주신 하나 된 성심의 계시에 관한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각 심방의 단계적인 해설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내 성심의 각 심방으로 들어 가는 입구라면, 영혼이 한 심방에서 다음 심방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에 더 깊이 내맡김에 의한 것임을 부디 이해하여라.”

“첫째 심방에서 영혼은 죄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 그것이 그의 구원, 내 어머니의 성심이다. 둘째 심방에서 영혼은 하느님과 이웃을 훨씬 더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한다.”

따라서 영혼이 둘째 심방에 들어가는 준비를 함에 따라 그의 양심은 어떻게 그가 현재를 지내는지에 대하여 더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이 원하실 때 그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 뜻에 내맡기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에 관하여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협력과 어떻게 지적인 자부심이 당신의 거룩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영혼의 진전을 막고 지연시키는 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페이지와 2001년 2월 14일 메시지 참조).

영혼이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더 깊이 내맡김으로써 진전할 때 그는 여섯째 심방인 하느님의 뜻에 끌어들여지고 완전히 잠겨지기를 더 열렬히 갈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경험은 영혼이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에 들어갈 때 맨 처음부터 이 경험을 느끼고 이는 하느님의 뜻은 심방들의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메시지에서 이 경험을 설명하시고 잇달아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에 의한 추가의 설명과 함께 다른 메시지가, 둘다 2003년 4월 2일에 주어집니다.

“내 아버지의 뜻인 여섯째 심방은 다른 모든 심방들을 감싸고 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심방들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여섯째 심방은 가장 높은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속에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그곳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거룩한 사랑인 첫째 심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혼은 어느 정도는 내 아버지의 뜻을 지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랑은 모든 심방처럼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내 아버지의 뜻은 영혼의 죄악과 억지를 걸러내고, 그 영혼이 하느님의 뜻에 매달리도록 도와주는 체로서 활동하신다. 잇따른 각 심방을 통해서 오히려 그 영혼 자신의 의지가 그 ‘체’에서 빠져나가고, 보다 많은 하느님의 뜻이 그 영혼을 채운다. 이승에서나 내세에서 가장 높은 천국인 여섯째 심방에 도달하는 영혼들은 하느님 뜻에 사로잡히고 더 이상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다시 마르가리타 마리아 성녀께서 2003년 4월 2일에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심방은 신성한 뜻인 하느님 성심의 포용입니다. 영혼은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감에 따라 아버지 하느님 성심의 포용이 강해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심방에 끌어들여질 때 영혼은 아버지의 포용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을 부디 이해하십시오. 다음의 각 심방에서 영혼은 아버지의 포용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각 영혼을 가장 높은 천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에서 우리는 영혼이 하느님과 일치에 있게 되는 목표와 갈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전형적인 예가 인간 속성에서의 복되신 어머니와 그분의 아드님, 성삼위의 성자 위격의 예수님과의 깊고 완전한 일치입니다. 이 인간과 신성의 일치가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001년 5월 25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내가 주는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즉,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 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의 제목이다. 이것은 모든 성덕을 통하여 빛나는 성덕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없으면, 모든 덕은 다만 표면적이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이 거룩한 사랑이다. 사랑의 불꽃, 그분 성심의 불꽃에서 분명한 잘못은 사랑에 내맡기는 각 영혼 앞에서 타 없어져 버린다. 거룩한 사랑, 내 어머니의 성심은 내 거룩한 성심의 첫째 심방이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일치한다. 우리의 서로 사랑은 흠 없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내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여 영혼은 계속해서 사랑에, 더 완전한 사랑에 깊은 내맡김으로 부름을 받는다. 내 부름의 목표는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이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뜻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모든 마음이 찾고 있는 평화는 거룩한 사랑이다. 세상이 찾고 있는 평화는 거룩한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모든 마음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그분의 부르심의 이 목표는 모든 마음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갖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마음이 첫째 심방,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서 먼저 신성한 자비를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한 것을 하느님 자비의 주일인 2008년 3월 30일에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서의 자정 기도 모임에서 주신 메시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 성심과 모든 인류의 마음 사이에 사랑의 유대가 성립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 메시지들과, 이곳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총들과, 하나 된 우리 성심을 통한 여정의 목적이다. 이 사랑의 유대는 인류의 마음이 내 신성한 자비의 바다에 잠기기 전까지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영혼은 그 자신의 부정을 인지하면서 자기 인식에 그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의 절정에 오르기 위해서 영혼은

우선 내 자비를 구해야 한다. 내 자비가 신성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첫째 심방, 즉 거룩한 사랑인 내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영혼은 그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자비를 구하는 은총이 제공된다. 그 다음에, 신성한 자비에 의해서 영혼은 그 다음 심방들로 인도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자비는 하나 된 사랑 (unitive love) 안에서 합쳐진다. 사랑과 자비는 둘 다 창조 그 자체를 반대하는 한 세대에 의해 몹시 시련을 겪고 있다. 하느님의 신성한 뜻이 거부될 때마다 전 세계가 고통을 겪는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바쳐지는 기도가 천국으로 올려지거나, 천국으로부터 한 메시지를 받거나, 혹은 천국으로부터 발현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죄의 부정적인 힘 · 조직이 반대한다.”

티 없으신 성심의 정화의 불꽃,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을 포기함으로써 영혼이 신성한 자비와 신성한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는 둘째 그리고 다음 심방들로 신속히 진전할 것이며 결과로 그가 간절히 바라던 참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비록 정신적으로 더 적게 고통스럽고 더 빠른 진척이지만 연옥의 불꽃에서 영혼의 정화와 비슷한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2009년 10월 22일의 한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티 없으신 성심의 정화의 불꽃,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을 포기함으로써 영혼이 신성한 자비와 신성한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는 둘째 그리고 다음 심방들로 신속히 진전할 것이며 결과로 그가 간절히 바라던 참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비록 정신적으로 더 적게 고통스럽고 더 빠른 진척이지만 연옥의 불꽃에서 영혼의 정화와 비슷한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2009년 10월 22일의 한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의 성심의 불꽃을 지나 내게로 오는 이들에게는 내 성심의 감실이 보다 빨리 그리고 쉽게 열린다. 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은 영혼들에게 그들의 모든 잘못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고, 죄책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영혼은 자유롭게 재빠르게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다음 심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 자비와 내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연옥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빨리 영혼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영혼이 내 성심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소중한 신뢰는 더 깊어진다. 이러한 신뢰의 척도는 언제나 평화다. 영혼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할수록 그가 누리는 평화는 점점 줄어든다. 참된 평화는 신성한 자비와 신성한 사랑에 대한 신뢰의 열매다.”

우리는 영혼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와 잠김을 향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에서 거룩한 사랑의 불꽃의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성은 2011년 5월 10일에 주신 한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추가로 강조됩니다.

“나는 모든 백성인 내 어머니의 성심인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 사랑의 햇불을 통한 여정은 곧 회개의 여정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회개는 내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너희는 깨달아라.”

“그 누구도 은총의 도움 없이는 이 여정을 시작하지 못한다. 그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이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선교사업이 그 동안 보기 드문 시련과 반대 들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권하는 거룩한 사랑을 통해 회개하라는 끊임없는 나의 부름 때문이다. 나의 이 부름은 영적으로 무관심해진 이 세상에 주는 희망이다. 내 어머니의 성심과 거룩한 사랑의 불꽃은 나의 재림 전에 사용될 이 시대의 영적 자원이다. 지금 이 시대는 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대이며 또한, 나의 자비에 휩싸인 사랑의 시대이다.”

첫째 심방에서 시작하는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정을 통해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로 모든 영혼들의 이 계속되는 부름은 흔히 천국으로부터 강조됩니다. 2001년 6월 22일 거룩한 성심과 티 없으신 성심의 축일에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서 자정 기도모임 메시지에서 복되신 어머니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로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회개를 요구하기 위하여 내 아드님이 나를 보내셔서 오늘밤 내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는 길은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다.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내 부름에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내맡기는 마음은 이 세상에서 내 도구가 된다. 이러한 마음에 의하여 나는 나의 승리를 시작하고 계속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내 아드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가는 여정은 너희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유일한 대비책이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에 내맡길 때, 너희는 그 여정을 시작하고 그것은 사탄에게 너희가 나에게 속한다는 징표가 된다. 비록 대항자가 너희를 시험할지라도, 너희가 이 거룩한 심방들로 들어가는 여정인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이 부름 안에 머문다면 적은 너희를 이길 수 없다.”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의 계시에 대한 메시지들에서 천국은 인류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기회를 주시고 그 목적을 위해 명확한 길이나 설계도를 제공하시는 한편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좌절시키거나 전환시키려는 나탄의 욕망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이 영적 여정을 따라가는 것의 중요성이 2011년 1월 12일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설명이 됩니다.

“사탄 외에 누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내 부름을 공격 하겠느냐? 그 밖에 누가 기도와 희생을 반대하겠느냐? 그 밖에 누가 인류의 영혼의 재활을 향한 이 부름을

비난하겠느냐?”

“그러나 모든 부정적인 면을 뛰어넘어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영적 여정을 추구하는 시간이다. 각 영혼은 거룩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자신과 그의 창조주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책임이 있다. 각 영혼이 이 선교사업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상관 없이 그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거룩한 사랑은 그의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신을 이 부름보다 높이 평가할 수 없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이르는 완덕은 개인의 거룩함(성덕)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 부름은 영혼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멸시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는 이 부름은 변함없다.” “거룩한 사랑은 내 어머니의 성심이며 이 사랑의 새 계약 궤다. 이 최종적인 계약 궤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성적인 것이다. 세상에서의 이 선교사업의 물질적인 현존 (겉모습) [자산, 메시지, 회개와 치유]은 사랑의 새 계약 궤에 이르는 관문들이다.”

“이 ‘관문들’ 안에서 그리고 이 ‘관문들’을 통한 신성한 사랑의 현존은 내 아버지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궁극적인 부름이다. 따라서 이제 너희는 악이 이곳에서의 나의 부름에 그와 같이 대항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너희에게 요구한다. 너희는 여기에서의 나의 부름에 귀 기울임과 나의 부름에 대한 믿음을 단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여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메시지들을 실천하여라.”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 여정에 대한 이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제11편은 하나 되신 성심의 둘째 심방인 거룩함, 곧 신성한 사랑에 대한 계시 메시지들을 검토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이 둘째 심방과 그 다음 심방들의 영성을 탐구할 때 언제나 2001년 10월 24일에 주신 다음 메시지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검토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간직하는 것이 적합할 수 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화와 천국자체로 인도하는 여정에 초대 받았습시다.”

“성모님의 승리와 하나 된 성심의 승리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통해서만 싸움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한다면, 성모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여정을 알리면서 다른 마음들에 승리를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심방에 있는지 알려고 검토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추측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행중에 있는 것처럼 단지 앞으로 계속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이 여정 중에 처해 있는 처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목적은 사랑을 통한 완덕의 추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여정과 비교하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실은 각자의 여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여기에 순례 오시는 모든 이들을**

**우리의 기도와 이 성지에서 천국이 제공하시는 평화에**

**함께 하시도록 초대합니다.**



##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육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6

메시지 신청: 440-327-5822

기도 신청: 440-327-8039

기도 신청 이-메일: [prayers@hollylove.org](mailto:prayers@hollylove.org)

선교회 연락: [mamshi@hollylove.org](mailto:mamshi@hol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lylove.org](mailto:volunteers@hol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lylove.org](mailto:testimonies@hollylove.org)

웹사이트: [www.hollylove.org](http://www.hollylove.org)

한국어 옮긴 이: 거룩한 사랑의 종 한인 선교회

Korean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KMSHL)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보편된 평신도 사도 모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재건하려는 열망은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성령의 부르심이며, 이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공동 기도가 요구된다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821 조항은 기술합니다: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모님, 주님, 여러 성인 성녀들이 이 마라나타 성지에 발현하십니다. 메시지들은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즉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의 거룩함을 성취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 목 차

|                            |       |
|----------------------------|-------|
|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 2 페이지 |
| 성 십자가 현양 축일과 고통의 성모 마리아 축일 | 4페이지  |
| 순례객 사진들                    | 6페이지  |
|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축일            | 8페이지  |
|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모임           | 15페이지 |
| 비통한 예수 성심에 대한 메시지들         | 17페이지 |
| 질의 응답                      | 24페이지 |
| 영적 여정의 시리즈 (제10편)          | 26페이지 |

## 자원 봉사, 의견과 제안

자원 봉사자 - 항상 필요합니다.

봉사 희망 연락처: [volunteers@hollylove.org](mailto:volunteers@hollylove.org)

뉴스 레터 신청: 우편물 수취인 명부를 위해  
성함과 주소를 c/o Newsletter  
Editor에게 또는 이-메일로 등록  
하십시오.

[newslettereditor@hollylove.org](mailto:newslettereditor@hollylove.org)

의견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newslettereditor@hollylove.org](mailto:newslettereditor@hollylove.org)

행사나 활동에  
대한 정보:

[www.hollylove.org](http://www.hollylove.org)

[www.hollylovekorean.org](http://www.hollylovekorean.org)

하나 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께 건네어 드립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티 없으신 마리아님